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귀하

대한민국 정부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2020년 5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

저희 글로벌 투자자 그룹들은 최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2050년 탄소제로사회 공약을 채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공약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세 도입,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 녹색 일자리 창출 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각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코로나 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 방안'을 권고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각 국의 경기 부양책은 반드시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해야 하며, 탄소제로사회로의 전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 성명서'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¹ 현재까지 총 631개 투자기관이 이 성명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들의 운용 자산규모는 총 37조 달러로 전 세계 운용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투자기관이 새롭게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²

¹ <https://theinvestoragenda.org/wp-content/uploads/2019/12/191201-GISGCC-FINAL-for-COP25.pdf>

² <https://www.bcg.com/ja-ip/publications/2019/global-asset-management-will-these-20s-roar.aspx>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에서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2020년까지 강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미치는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어, 탄소배출 제로의 기후탄력적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 각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감축목표(NDC) 수준으로는 이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한국은 그간 녹색성장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탄소배출 감축을 포함하여 2010년 배출량 대비 20% 이하로 감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저희 글로벌 투자자 그룹들은 한국이 올해 제출하게 될 수정된 국가감축목표(NDC)에 보다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2030년까지의 단기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한 그린뉴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기를 기대합니다. 2050년 탄소제로사회 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조치들이 글로벌 투자기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권고 사항과 함께 이행된다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파리협정 이행과 탄소제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인프라 및 기후 대응 조치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창출하게 될 것이며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거래 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일부 선도기업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국제 흐름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 모두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또한 한국의 여러 금융그룹이 기후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을 수용하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주요 연기금 및 보험사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중단 선언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한 것 또한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드라이브와 함께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입법 및 관련 정책안이 보완된다면,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추후 한국 정부 담당자와 본 서한 및 성명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관투자자는 ‘유니버설 오너 (universal owner)’로서 전 세계 기업에 장기 투자하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때 기관투자자는 특별한 정치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할 기회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여섯 곳의 글로벌 투자자 그룹을 대표하여,

레베카 미쿨라 라이트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투자자그룹(AIGCC)
국장

민디 루버
환경책임경제연합 세레스(CERES) 최고경영자
및 회장

폴 심슨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최고경영자

피오나 레이롤즈
책임투자원칙(PRI)기구 최고경영자



Ceres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Stephanie Pfeifer

스테파니 파이퍼

기후변화 기관투자자그룹(IIGCC) 최고경영자

Emma Hardy

에마 허드

기후변화 투자자그룹(IIGCC) 최고경영자